

새가구증후군 해소 코팅제 개발

포름알데히드 · VOCs 원천 차단 ... 다양한 시공방법 선택 가능

국제공인 시험 · 검사기관인 과학기술분석센터(대표 이익재)는 새가구증후군 해소에 효과가 있는 천연 바이오 코팅제 Natural Bio Coat를 개발했다고 8월15일 발표했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순수 천연물과 천연추출물로 구성됐으며 인체에 무해한 Natural Bio Coat는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Form Aldehyde) 및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자재의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말이나 도포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온에서 신속하게 건조돼 목재나 가구, 벽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건설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천연소재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Natural Bio Coat를 수입 및 국산 전자재용 목재에 시험한 결과 80-95%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줄였으며, 종전 전자재 마감기술을 사용한 시공보다 최고 10분의 1 수준까지 시공비가 적게 들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석센터는 식약청, 농림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정부부처로부터 환경분야 등의 공인 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1997년 설립됐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6>